

정명훈, 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 지휘



8개월 만에 국내 포디엄에 오르는 정명훈(63·사진)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은 여전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후 28년 만에 서울에 들어서는 클래식음악 전용홀인 잠실 롯데콘서트홀 개관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언론에 공개된 이 첫 리허설 현장에서 변함없는 열정을 과시했다.

개관 공연 당일 서울시향과 함께 연주할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4악장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물론 단원 100여명의 연주 소리 하나하나를 노련하게 다듬어냈다. 5000여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은 객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자리 잡은 오르간에 연결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대 바닥에

설치된 20개 조각의 리프트는 연주자들의 눈높이를 조정, 정 전 감독의 시야를 쉽게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향 송년 대표 레퍼토리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후 서울시향과 처음 호흡을 맞춘 정 전 감독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며 단원들을 다독였다. 입으로 선율의 템포와 강약을 조절하는 습관도 여전했다. 이번 연주의 녹음을 진행하는 프로듀서 마이클 파인, 롯데콘서트홀 음향을 설계한 도요타 야스히사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리허설 도중 만난 정 감독은 다시 한국 청중과 만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

“뜨겁게 감사하죠”... 리허설 현장에서 변함없는 열정 과시

이상의 말은 더 나올 수가 있다. 일평생 한국에서 연주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뜨겁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지난달 횡령 협의 의혹 건으로 국내에서 경찰 조사 등을 받았던 정 전 감독은 이후 콘서트 일정 등으로 약 3주간 외국에 머물렀다. 지난해 귀국, 광화문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준비해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정 전 감독의 항공료 횡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어깨에 짐을 던진 상황이다.

횡령 의혹 등으로 겪었을 그간의 어려움을 묻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 안 한다. 반대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다. "진짜 훌륭한 음악을 만들려면 사람이 좋아야 한다. 이제 우리도 잘사는 나라가 됐다. 기술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휴먼 퀄리티'도 올라가야 한다. 그라야 훌륭한 음악이 나온다."

한국 청중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외국 오케스트라에 자랑한다는 그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제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첫 '빈야드(vinyard) 스타일' 공연장이다. 빈야드는 '포도밭' '포도원'이라는 뜻으로 포도밭처럼 흙 중심에 연주 무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2036석 어느 곳에서든 음향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은 19일 이 콘서트의 개막 공연을 이끈다.

정 전 감독은 롯데콘서트홀에 대해 "음향이 훌륭하다. 첫 리허설이라 조정할 것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훌륭한 홀"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런 홀이 생긴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기량이라고 했다. 25년 전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지휘를 했을 때 떠올리며 "진짜 숙제는 연주자에게 있다"고 했다.

롯데콘서트홀의 정확한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홀이라도 완벽한 소리를 내려면 조정이 필요하다. 청중이 차 있을 때는 다르니까. 계속 찾아야 한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연주할 때 "이런 걸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작곡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음악을 살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책임이다. 목적은 하나다. 그날 특별히 음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진행하는 음반 녹음은 오케스트라 발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통 연주 준비하는 것보다 몇배는 더 준비해야 한다"며 "오케스트라에 매우 큰 훈련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향 역시 레코딩(음반 녹음)을 해서 이만큼(수준) 올라갔다. 올라가는 것은 지독히 힘들다"고 했다. /뉴스

최재철의 책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개벽을 열다' 출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 총장)과 원불교 100년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신간도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가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에서 출간된다.

이 책은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를 도와 교단 창립과 발전의 초석(礎石)을 다진 아홉 제자(九人先進)의 삶과 사상을 16명의 연구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최초의 학문적 성과물로써 평범한 조선의 서민, 향촌 지식인들이 한 선각자의 지도 속에서 종교적 선진(先進)으로 성장해 활동하고, 한국 자생의 세계적인 종교로서 원불교를 조형(造形)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과 의의를 밝혔다.

총 536쪽에 걸쳐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선진>, <구인선진의 생애와 사상>, <구인선진의 종교사적 위상> 등 3부로 구성됐으며,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 이용재 영산선학대 교수, 이경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 조성현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을 비롯한 16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한편, 원불교는 생활종교로서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높고 건실한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었는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종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원불교 교단 내적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교육을 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학을 설치해 일본식 교육 체제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한글을 가르치면서 사회의 제도와 모순을 혁신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힘쓰으로써 정신개벽의 요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교동아트미술관 '추왕석 개인전'

'달을 거닐며'

달을 좋아하는 추왕석 작가가 '달을 거닐며' 개인전을 갖는다. 도자아티스트 작가에게 달항아리는 보물창고이자 어머니의 이미지로 연계된다.

작가는 말한다. "보름달의 파스함과 포근함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다. 내일기만 하면 언젠가 잡아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은 달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이다."며 "보름달 같은 어머니는 지식과 당신의 조각난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이 어불이머 상처를 치유해 왔다"고. 그리고 이제는 작가 자신이 그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기쁨·슬픔·아픔·보람 등 인생의 파편들을 달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는 토기·옹기·백자·사기 등 여기저기에 흩어지고 버려졌던 도자 파편들을 활용해 면면을 메우며 하나의 거대한 달항아리로 완성해 간다. 이는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8월 개봉영화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 상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8월 셋째 주 상영작으로, 안테르센의 명작 동화 '눈의 여왕'을 재해석한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과 이별했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남녀들의 솔직한 로맨스를 담은 <우리 연애의 이력>을 상영한다.

애니메이션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은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려 얼어붙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선 용감한 소년 카이의 거대한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이름 마리아 이야기와 천년여우 여우비를 연출한 이상강 감독의 작품으로 안테르센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과 흥미진진한 모험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와 우정을 담은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영화는 서정적이고 따뜻한 그림체로 제작돼 관객들의 눈길을 끌며, 최근 극장가를 사로잡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우리 연애의 이력>은 이별했으나 헤어지지 못한 영화감독 지망생과 재기를 꿈꾸는 여배우간의 웃픈 로맨스를 담아낸 작품이다.

매 방송마다 화제를 불렀던 tvN드라마 '또 오해영'으로 주가를 올린 전혜빈과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창조센터, 신진작가 용·복합 상품개발 공모 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는 전문적인 전통문화 기술교육을 통해 <장식·활동·실용>을 주제로 생활상품을 개발하는 '2016 신진작가 전통문화 용·복합 상품개발 공모'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창조경제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전통문화 제조업 분야에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장식·활동·실용 등이며, 지원 대상은 전통문화 용·복합 상품 개발이 가능한 현대공예작가와 디자이너,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이다.

작품은 전통문화 소재·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작하면 된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장식분야는 실내 장식과 배치가 가능한 생활용품개발로 테이블·타자·책상 배치용이나 실내 장식용 제품, 활동분야는 외부활동에 적합한 응용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상품의 외부 활용도를 높여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 실용분야는 첨단·실용적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전통문화자원의 이점과 현대 기술이 접목돼 실생활에 사용하기 적합한 신상품을 개발해 공모하면 된다.

공모신청은 오는 25일부터 9월 2일 오후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전통문화창조센터 063)281-1573.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8일>

<h4>▷쥐띠</h4> <p>46년생: 타인과의 화합도 잘 되고 막대한 일들이 풀리는 운이다.</p> <p>60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라.</p> <p>72년생: 먼저 배울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p> <p>84년생: 후진에는 잘 풀리니 고민하지 말고 진행하라.</p>	<h4>▷소띠</h4> <p>49년생: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큰 것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운이 막히니 주의하라.</p> <p>61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p> <p>73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p> <p>85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손을 내밀어라.</p>	<h4>▷호랑이띠</h4> <p>50년생: 사교수가 따르니 원형은 심기라.</p> <p>6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p> <p>74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고 혼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p> <p>86년생: 친구나 동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h4>▷토끼띠</h4> <p>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는 피해가 되니 조심하라.</p> <p>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p> <p>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p> <p>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p>
<h4>▷용띠</h4> <p>52년생: 잠시 늘릴만 할 일이 발생하니 중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p> <p>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p> <p>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p> <p>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p>	<h4>▷뱀띠</h4> <p>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p> <p>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p> <p>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p> <p>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켜라.</p>	<h4>▷말띠</h4> <p>54년생: 좋은일 하고 뽐 맞는 격.</p> <p>6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니 걱정마라.</p> <p>78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p> <p>90년생: 식욕이 따르니 모임을하거나 식사사육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p>	<h4>▷양띠</h4> <p>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p> <p>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p> <p>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p> <p>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고 분수에 맞게 진행할 것.</p>
<h4>▷원숭이띠</h4> <p>56년생: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p> <p>68년생: 비뻔한 이익은 얻기 어려우니 욕심을 버려라.</p> <p>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진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p> <p>92년생: 시스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p>	<h4>▷닭띠</h4> <p>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p> <p>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충만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p> <p>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p> <p>93년생: 작은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p>	<h4>▷개띠</h4> <p>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르니.</p> <p>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p> <p>70년생: 독단독행 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p> <p>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h4>▷돼지띠</h4> <p>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p> <p>59년생: 운수를 주고 받기에는 좋은 때이다.</p> <p>71년생: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라.</p> <p>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다.</p>